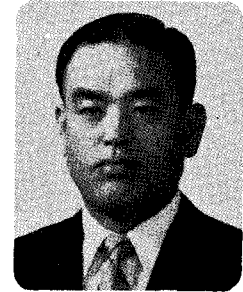


새로 출범하는 축협중앙회에 부쳐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조합의 도착화 기대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란 소박한 이념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생한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협동조합의 조직에 있었으나, 자금 조성면에서 관(官)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그 운영면에서도 자주성을 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종합 농협에서 전문 조합으로 분리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소치라 할 것이다.

새로히 발족하는 축산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보다면 조합원의 이해와 참여와 더욱 철저히 요구되는 까닭에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는 바이다.



윤도진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장)

조합에 대한 참여도의 제고(提高)

협동조합 운동이란 바로 이념운동이란 점이다. 즉 이념 운동이란, 인간들의 집합체니까 개성이 다르고 경영면에서는 규모나 경영방식이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우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들 수 있다면 공동 생활의 훈련이 미숙해서 각기 자신의 주관만을 내세우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 조직은 분명히 조합원 각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조직이란 점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1979년 부터 계속되는 양계 불황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중대한 사실이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 조직이 바로 내 산업에 획기적인 이권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그 방법면에서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조직을 구성함에는 분명히 내산업에 보다 나은 이윤 추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조직이 각 조합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고 있느냐가 큰 관건이다. 즉 우리가 누려야 할 권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정부나 사회가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들의 노력이 없이 어디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권익이라면 그것은 내 것으로 오래 오래 간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 가치가 그리 빛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조합의 일이 바로 내 일이며 내 것이란 개념이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정에서, 사회도 국가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조합을 운영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조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꾼 문제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이념과 지도력, 사회적인 신망을 고루 갖춘 인격자가 분명히 그 자리의 책임자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이 사회가 그리 탐탁하게 대접을 하는 자리도 아니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높은 수입이 보장된 자리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령일하(命令一下)에 그 조합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는 권위의 자리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념운동이란 우선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반면, 남이 알아주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말한 요건이 갖추어진 분이 그 지역에서 확고한 이념과 철학이 정립된 인격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마치 운동경기가 끝나면 좁은 문으로 물 밀듯이 밀려 나오는데 그 대열에 끼어 있으면 그저 밀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 사회는 변천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대는 부르고 있다. 언제까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경제사회는 냉혹하다. 우리의 국내적인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하겠으나 국제사회의 경쟁이란 더욱 냉혹함을 통감하게 된다. 우리는 국제가에 비하여 펴, 비싼 값으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그것은 주원료의 도입에서 오는 원인도 크지만 생산성의 낙후나 경영의 불합리에서 오는 것 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모순일 것이고 그 모순은 시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사업을 보호해야

그것이 바로 1979년과 1980년에 걸쳐서 수

입된 난분(卵粉)이다. 우리 양계를 내 생업으로 영위하는 데는 내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성의 제고로 보다 저렴한 계란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일이며 그 다음으로 조직으로 하여금 내 산업을 지켜나 가도록 하는 일이다. 즉 내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농민의 공동된 요망 사항을 든다면 무엇보다 자기산물에 대한 적정이윤이 가산된 상태에서 팔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에는 극히 소극적이다.

우리는 1979년 후반부터 돼지생산 과잉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를 떠들썩 하게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즉 마스크이 소상하게 보도를 해서 그 업계의 상황을 온 국민에게 알려 주므로써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어 소비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행정부 입법부 어디를 가나 돼지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고, 또 해결방법이 최대한 채택되어 실천에 옮겨지므로써 양돈농가 보호에 큰 기여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소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민들을 돕는 좋은 사례(事例)를 만들었고 비축시설의 대폭적인 확장, 매수, 비축등 얼마나 좋은 일을 해왔는가.

정열과 애정과 긍지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

반면 양계업계의 불황은 그 기간 면에서 훨씬 장기화 되고 있으며 많은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데도 사회일각에서 걱정을 해주고 이 문제해결을 서둘러 주는 계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마치 아무도 보살펴 주지않는 고아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슬픈 사연이다.

양계산업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벌써 노쇠산업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 철학교수의 찝막한

글을 읽었는데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들어 정열과 애정과 긍지를 가지라는 내용이다. 나는 이 글을 자주 음미해 본다. 우리 양계인들이 이 글의 내용을 음미해서 내것으로 삼아야만 우리 양계산업은 새로운 발전의 궤도를 달리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놓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조직도 중요하다. 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통해서, 내 산업은 나와 내 조직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의 뿌리가 내려야 할 것이다. 옛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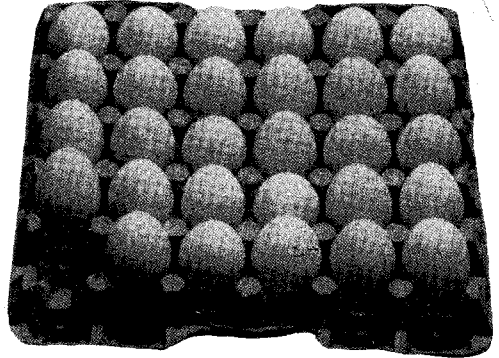
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이 땅위에는 진정 농업협동조합이 정착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정착되었다 하는 것은 신용사회의 토착화가 이루어 졌다는 말과 일치된다.

우리는 신용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다. 갈망하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꿈이 있는 민족은 장래가 밝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새로히 출범하는 축산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비는 바이다.

위생적인 계란보관은 종이난좌로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